

## 체형 및 의복 색이 남자아동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송 경 자\*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박사과정)

김 재 숙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의복을 포함한 외모는 대인지각에 있어서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로 작용하며, 지각대상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근 아동들의 인스턴트를 선호하는 식문화는 비만아동을 증가 시켜 왔으나 현대의 미의 개념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날씬함을 추구하게 하고 비만한 체형은 신체의 건강함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의 체형은 자신에 대한 인상형성에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고, 의복의 색상은 의복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표현적인 요소로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아동의 체형 및 의복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며, 피험자는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의 11~12세의 초등학교 48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자극물은 체형(정상, 비만), 의복색(분홍, 파랑), 의복색의 수준(칼라·소매, 가슴·소매, 전체)이 서로 다른 총 12개가 CAD System을 이용해 제작되었으며 피험자는 이 자극물을 보고 설문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변량 분석, t-검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미지 차원은 5개의 요인(매력성, 평가성, 역능성, 체형, 현시성)으로 도출되었다. 정상체형은 비만체형보다 인기있고 멋있으며 매력적으로 지각되었고, 더 예의바르고 겸손하며 공부를 잘해 모범생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날씬하다고 지각되었다.

분홍색을 입었을 때 파랑색보다 날씬한 것으로 지각되어 파랑색이 날씬하게 보일 것이라는 성인의 고정관념이 나타나지 않았다. 칼라와 소매에 혹은 전체에 색이 포함되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상체형이면서 파랑색을 입었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지각되고 비만체형이면서 분홍색을 입었을 때 가장 보기 싫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 정상체형이면서 분홍색을 입었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가장 날씬하게 지각되었다.

정상체형이면서 파랑색 상의를 입었을 때가 가장 멋있고 매력있게 지각되어 호감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자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응답자가 자극물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